

번호	한자	한글	설명
1	天地玄黃	천지현황	하늘은 위에 있어 그 빛이 검고 땅은 아래 있어서 그 빛이 누르다.
2	宇宙洪荒	우주홍황	하늘과 땅 사이는 넓고 커서 끝이 없다. 즉 세상의 넓음을 말한다.
3	日月盈昃	일월영측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달도 차면 점차 이지러진다. 즉 우주의 진리를 말한다.
4	辰宿列張	진숙열장	성좌가 해 달과 같이 하늘에 넓게 별려져 있음을 말한다.
5	寒來暑往	한래서왕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고 더운 것이 오면 찬 것이 간다. 즉 사철의 바뀜을 말한다.
6	秋收冬藏	추수동장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겨울이 오면 그것을 감춰 들인다.
7	閏餘成歲	윤여성세	일년 이십사절기 나머지 시각을 모아 윤달로 하여 해를 이루었다.
8	律呂調陽	율려조양	천지간의 양기를 고르게 하니 즉 율은 양이요 여는 음이다.
9	雲騰致雨	운등치우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냉기를 만나 비가 된다. 즉 자연의 기상을 말한다.
10	露結爲霜	노결위상	이슬이 맺어 서리가 되니 밤기운이 풀잎에 물방울처럼 이슬을 이룬다.
11	金生麗水	금생여수	금은 여수에서 나니 여수는 중국의 지명이다.
12	玉出崑岡	옥출곤강	옥은 곤강에서 나니 곤강은 역시 중국의 산 이름이다.
13	劍號巨闕	검호거궤	거궤는 칼이름이고 구야자가 지은 보검이다. 즉 조나라의 국보다.
14	珠稱夜光	주칭야광	구슬의 빛이 밤의 낮 같은 고로 야광이라 칭하였다.
15	果珍李柰	과진이내	과실 중에 오얏과 능금나무의 그 진미가 으뜸임을 말한다.
16	菜重芥薑	채중개강	나물은 겨자와 생강이 중하다.
17	海鹹河淡	해함하담	바다 물은 짜고 밀물은 맛도 없고 맑다.
18	鱗潛羽翔	인잠우상	비늘 있는 고기는 물 속에 잠기고 날개 있는 새는 공중에 난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19	龍師火帝	용사화제	복희씨는 용으로써 벼슬을 기록하고 신농씨는 불로써 기록하였다.
20	鳥官人皇	조관인황	소호는 새로써 벼슬을 기록하고 황제는 인문을 갖추었으므로 인황이라 하였다.
21	始制文字	시제문자	복희의 신하 창힐이라는 사람이 새의 발자취를 보고 글자를 처음 만들었다.
22	乃服衣裳	내복의상	이에 의상을 입게 하니 황제가 의관을 지어 등분을 분별하고 위의를 엄숙케 하였다.
23	推位讓國	추위양국	벼슬을 미루고 나라를 사양하니 제요가 제순에게 전위하였다.
24	有虞陶唐	유우도당	유우는 제순이요 도당은 제요이다. 즉 중국 고대 제왕이다.
25	弔民伐罪	조민벌죄	불쌍한 백성은 돕고 죄지는 백성은 벌주었다.
26	周發殷湯	주발은탕	주발은 무왕의 이름이고 은탕은 왕의 칭호이다.
27	坐朝問道	좌조문도	좌조는 천하를 통일하여 왕위에 앉은 것이고 문도는 나라 다스리는 법을 말한다.
28	垂拱平章	수공평장	밝고 평화스럽게 다스리는 길을 겸손히 생각함을 말한다.
29	愛育黎首	애육여수	☞이 천하를 다스림에 ☞을 사랑하고 양육함을 말한다.
30	臣伏戎羌	신복융강	이상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에 융과 강도 항복하고야 만다.
31	遐邇壹體	하이일체	멀고 가까운 나라가 전부 그 덕망에 귀순케 하며 일체가 될 수 있다.
32	率賓歸王	솔빈귀왕	거느리고 복종하여 왕에게 돌아오니 덕을 입어 복종치 않음이 없음을 말한다.
33	鳴鳳在樹	명봉재수	명군 성현이 나타나면 봉이 운다는 말과 같이 덕망이 미치는 곳마다 봉이 나무 위에서 울 것이다.
34	白駒食場	백구식장	평화스러움을 말한 것이며, 즉 흰 망아지도 감화되어 사람을 따르며 마당 풀을 뜯어먹게 한다.
35	化被草木	화피초목	덕화가 사람이나 짐승에게만 미칠 뿐 아니라 초목에까지도 미침을 말한다.
36	賴及萬方	뇌급만방	만방이 극히 넓으나 어진 덕이 고루 미치게 된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37	蓋此身髮	개차신발	이 몸의 털은 대개 사람마다 없는 이가 없다.
38	四大五常	사대오상	네 가지 큰 것과 다섯 가지 떳떳함이 있으니 즉 사대는 천지 군부요 오상은 인의예지신이다.
39	恭惟鞠養	공유국양	국양함을 공손히 하라. 이 몸은 부모의 기르신 은혜이기 때문이다.
40	豈敢毀傷	기감훼상	부모께서 낳아 길러 주신 이 몸을 어찌 감히 훼손할 수 있으랴.
41	女慕貞烈	여모정열	여자는 정조를 굳게 지키고 행실을 단정하게 해야 함을 말한다.
42	男效才良	남효재량	남자는 재능을 닦고 어진 것을 본받아야 함을 말한다.
43	知過必改	지과필개	누구나 허물이 있는 것이니 허물을 알면 즉시 고쳐야 한다.
44	得能莫忘	득능막망	사람으로써 알아야 할 것을 배운 후에는 잊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5	罔談彼短	망담피단	자기의 단점을 말 안하는 동시에 남의 잘못을 욕하지 말라.
46	靡恃己長	미시기장	자신의 특기를 믿고 자랑하지 말라. 그럼으로써 더욱 발달한다.
47	信使可覆	신사가복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이고 또한 남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48	器欲難量	기욕난량	사람의 기량은 깊고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다.
49	墨悲絲染	묵비사염	흰 실에 검은 물이 들면 다시 회지 못함을 슬퍼한다. 즉 사람도 매사를 조심하여야 한다.
50	詩讚羔羊	시찬고양	시전 고양편에 문왕의 덕을 입은 남국 대부의 정직함을 칭찬하였으니 사람의 선악을 말한 것이다.
51	景行維賢	경행유현	행실을 훌륭하게 하고 당당하게 행하면 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52	克念作聖	극념작성	성인의 언행을 잘 생각하여 수양을 쌓으면 자연 성인이 됨을 말한다.
53	德建名立	덕건명립	항상 덕을 가지고 세상일을 행하면 자연 이름도 서게 된다.
54	形端表正	형단표정	몸 형상이 단정하고 깨끗하면 마음도 바르며 또 표면에 나타난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55	空谷傳聲	공곡전성	산골짜기에서 크게 소리치면 그대로 전한다. 즉 악한 일을 당하게 된다.
56	虛堂習聽	허당습청	빈방에서 소리를 내면 울려서 다 들린다. 즉 착한 말을 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한다.
57	禍因惡積	화인악적	재앙은 악을 쌓음에 인한 것이므로 재앙을 받는 이는 평일에 악을 쌓았기 때문이다.
58	福緣善慶	복연선경	복은 착한 일에서 오는 것이니 착한 일을 하면 경사가 온다.
59	尺璧非寶	척벽비보	한 자 되는 구슬이라고 해서 결코 보배라고는 할 수 없다.
60	寸陰是競	촌음시경	한 자 되는 구슬보다도 잠깐의 시간이 더욱 귀중하니 시간을 아껴야 한다.
61	資父事君	자부사군	아비를 자로로 하여 임금을 섬길지니 아버 섬기는 효도로 임금을 섬겨야 한다.
62	曰嚴與敬	왈엄여경	임금을 대하는 데는 엄숙함과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
63	孝當竭力	효당갈력	부모를 섬길 때에는 마땅히 힘을 다하여야 한다.
64	忠則盡命	충즉진명	충성함에는 곧 목숨을 다하니 임금을 섬기는 데 몸을 사양해서는 안된다.
65	臨深履薄	임심리박	깊은 곳에 임하듯 하며 얇은 데를 밟듯이 세심 주의하여야 한다.
66	夙興溫清	숙흥온청	일찍 일어나서 추우면 덥게, 더우면 서늘케 하는 것이 부모 섬기는 절차이다.
67	似蘭斯馨	사난사형	난초같이 꽃다우니 군자의 지조를 비유한 것이다.
68	如松之盛	여송지성	솔 나무같이 푸르려 성함은 군자의 절개를 말한 것이다.
69	川流不息	천류불식	내가 흘러 쉬지 아니하니 군자의 행지를 말한 것이다.
70	淵澄取暎	연징취영	못이 맑아서 비치니 즉 군자의 마음을 말한 것이다.
71	容止若思	용지약사	행동을 덤비지 말고 형용과 행지를 조용히 생각하는 침착한 태도를 가져라.
72	言辭安定	언사안정	태도만 침착할 뿐 아니라 말도 안정케 하며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

번호	한자	한글	설명
73	篤初誠美	독초성미	무엇이든지 처음에 성실하고 신중히 하여야 한다.
74	愼終宜令	신종의령	처음뿐만 아니라 끝맺음도 좋아야 한다.
75	榮業所基	영업소기	이상과 같이 잘 지키면 번성하는 기본이 된다.
76	籍甚無竟	적심무경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스러운 이름이 길이 전하여질 것이다.
77	學優登仕	학우등사	배운 것이 넉넉하면 벼슬에 오를 수 있다.
78	攝職從政	섭직종정	벼슬을 잡아 정사를 좇으니 국가 정사에 종사하니라.
79	存以甘棠	존이감당	주나라 소공이 남국의 아가위나무 아래에서 백성을 교화하였다.
80	去而益詠	거이익영	소공이 죽은 후 남국의 백성이 그의 덕을 추모하여 감당시를 읊었다.
81	樂殊貴賤	악수귀천	풍류는 귀천이 다르니 천자는 팔일 제후는 육일 사대부는 사일 선일은 이일이다.
82	禮別尊卑	예별존비	예도에 존비의 분별이 있으니 군신, 부자, 부부, 장유, 봉우의 차별이 있다.
83	上和下睦	상화하목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에서 공경함으로써 화목이 된다.
84	夫唱婦隨	부창부수	지아비가 부르면 지어미가 따른다. 즉 원만한 가정을 말한다.
85	外受傳訓	외수부훈	팔세면 바깥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86	入奉母儀	입봉모의	집에 들어서는 어머니를 받들어 종사하라.
87	諸姑伯叔	제고백숙	고모, 백부, 숙부 등 집안 내의 친척 등을 말한다.
88	猶子比兒	유자비아	조카들도 자기의 아들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89	孔懷兄弟	공회형제	형제는 서로 사랑하여 의종게 지내야 한다.
90	同氣連枝	동기연지	형제는 부모의 기운을 같이 받았으니 나무의 가지와 같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91	交友投分	교우투분	벗을 사귈 때에는 서로가 분에 맞는 사람끼리 사귀어야 한다.
92	切磨箴規	절마잠규	열심히 닦고 배워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켜야 한다.
93	仁慈隱惻	인자은측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또는 이를 측은히 여겨야 한다.
94	造次弗離	조차불리	남을 위한 동정심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항상 가져야 한다.
95	節義廉退	절의염퇴	청렴과 절개와 의리와 사양함과 물러감은 늘 지켜야 한다.
96	顛沛匪虧	전패비휴	엎드려지고 자빠져도 이지러지지 않으니 용기를 잃지 말라.
97	性靜情逸	성정정일	성품이 고요하면 뜻이 편안하니 고요함은 천성이요 동작함은 인정이다.
98	心動神疲	심동신평	마음이 움직이면 신기가 피곤하니 마음이 불안하면 신기가 불편하다.
99	守眞志滿	수진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면 뜻이 차고 군자의 도를 지키면 뜻이 편안하다.
100	逐物意移	축물의이	마음이 불안함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너무 욕심내면 마음도 변한다.
101	堅持雅操	견지아조	맑은 절조를 굳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도리를 극진히 함이라.
102	好爵自縻	호작자미	스스로 벼슬을 얻게 되니 찬작을 극진하면 인작이 스스로 이르게 된다.
103	都邑華夏	도읍화하	도읍은 왕성의 지위를 말한 것이고 화하는 당시 중국을 지칭하던 말이다.
104	東西二京	동서이경	동과 서에 두 서울이 있으니 동경은 낙양이고 서경은 장안이다.
105	背邙面洛	배망면낙	동경은 북에 북망산이 있고 낙양은 남에 낙천이 있다.
106	浮渭據涇	부위거경	위수에 뜨고 경수를 눌렀으니 장안은 서북에 위천, 경수, 두물이 있었다.
107	宮殿盤鬱	궁전반울	궁전은 울창한 나무 사이에 서린 듯 정하고
108	樓觀飛驚	누관비경	궁전 가운데 있는 물건대는 높아서 올라가면 나는 듯하여 놀란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109	圖寫禽獸	도사금수	궁전 내부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조각 등으로 장식되어 있다.
110	畫綵仙靈	화채선령	신선과 신령의 그림도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다.
111	丙舍傍啓	병사방계	병사 곁에 통고를 열어 궁전 내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112	甲帳對楹	갑장대영	아름다운 갑장이 기둥을 대하였으니 동방 삭이 갑장을 지어 임금이 잠시 정지하는 곳이다.
113	肆筵設席	사연설석	자리를 베풀고 돛자리를 베풀니 연회하는 좌석이다.
114	鼓瑟吹笙	고슬취생	비파를 치고 저를 부니 잔치하는 풍류이다.
115	陞階納陛	승계납폐	문무백관이 계단을 올라 임금께 납폐하는 절차이니라.
116	弁轉疑星	변전의성	많은 사람들의 관에서 번쩍이는 구슬이 별안간 의심할 정도이다.
117	右通廣內	우통광내	오른편에 광내가 통하니 광내는 나라 비서를 두는 집이다.
118	左達承明	좌달승명	왼편에 승명이 사무치니 승명은 사기를 교열하는 집이다.
119	旣集墳典	기집분전	이미 분과 전을 모았으니 삼황의 글은 삼분이요 오제의 글은 오전이다.
120	亦聚群英	역취군영	또한 여러 영웅을 모으니 분전을 강론하여 치국하는 도를 밝힘이라.
121	杜藁鍾隸	두고종례	초서를 처음으로 쓴 두고와 예서를 쓴 종례의 글로 비치되었다.
122	漆書壁經	칠서벽경	하나라 영제가 돌벽에서 발견한 서골과 공자가 발견한 육경도 비치되어 있다.
123	府羅將相	부라장상	마을 좌우에 장수와 정승이 벌려 있었다.
124	路俠槐卿	노협괴경	길에 고위 고관인 삼공구경의 마차가 열지어 궁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125	戶封八縣	호봉팔현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여덟 고을 민호를 주어 공신을 봉하였다.
126	家給千兵	가급천병	제후 나라에 일천 군사를 주어 그의 집을 호위시켰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127	高冠陪輦	고관배련	높은 관을 쓰고 연을 모시니 제후의 예로 대접했다.
128	驅轂振纓	구곡진영	수레를 몰며 갓끈이 떨치니 임금출행에 제후의 위엄이 있다
129	世祿侈富	세록치부	대대로 녹이 사치하고 부하니 제후 자손이 세세 관록이 무성하여라.
130	車駕肥輕	거가비경	수레의 말은 살찌고 몸의 의복은 가볍게 차려져 있다.
131	策功茂實	책공무실	공을 꾀함에 무성하고 충실하러라.
132	勒碑刻銘	늑비각명	비를 세워 이름을 새겨서 그 공을 찬양하며 후세에 전하였다.
133	磻溪伊尹	반계이윤	문왕은 반계에서 강태공을 맞고 은왕은 신야에서 이윤을 맞이하였다.
134	佐時阿衡	좌시아형	때를 돕는 아형이니 아형은 상나라 재상의 칭호이다.
135	奄宅曲阜	엄택곡부	주공이 큰 공이 있는 고로 노국을 봉한 후 곡부에다 궁전을 세웠다.
136	微旦孰營	미단숙영	주공의 단이 아니면 어찌 큰 궁전을 세웠으리요.
137	桓公匡合	환공광합	제나라 환공은 바르게 하고 모두었으니 초를 물리치고 난을 바로잡았다.
138	濟弱扶傾	제약부경	약한 나라를 구제하고 기울어지는 제신을 도와서 붙들어 주었다.
139	綺回漢惠	기회한혜	하나라 네 현인의 한 사람인 기가 한나라 혜제를 회복시켰다.
140	兌感武丁	열감무정	부열이 들에서 역사하매 무정의 꿈에 감동되어 곧 정승에 되었다.
141	俊乂密勿	준예밀물	준걸과 재사가 조정에 모여 뵈뵈하더라.
142	多士寔寧	다사식녕	준걸과 재사가 조정에 많으니 국가가 태평함이라.
143	晉楚更霸	진초갱패	진과 초가 다시 으뜸이 되니 진문공 초장왕이 패왕이 되니라.
144	趙魏困橫	조위곤횡	조와 위는 횡에 곤하니 육군때에 진나라를 섬기자 함을 횡이라 하니라.



번호	한자	한글	설명
145	假途滅虢	가도멸곡	길을 빌려 곡국을 멸하니 진헌공이 우국길을 빌려 곡국을 멸하였다.
146	踐土會盟	천토회맹	진문공이 제후를 천토에 모아 맹세하고 협천자영 제후하니라.
147	何遵約法	하준약법	소하는 한고조로 더불어 약법삼장을 정하여 준행하리라.
148	韓弊煩刑	한폐번형	한비는 진왕을 달래 형벌을 펴다가 그 형벌에 죽는다.
149	起翦頗牧	기전파목	백기와 왕전은 진나라 장수요 염파와 이목은 조나라 장수였다.
150	用軍最精	용군최정	군사 쓰기를 가장 정결히 하였다
151	宣威沙漠	선위사막	장수로서 그 위엄은 멀리 사막에까지 퍼졌다.
152	馳譽丹青	치예단청	그 이름은 생전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전하기 위하여 초상을 기린각에 그렸다.
153	九州禹跡	구주우적	하우씨가 구주를 분별하니 기, 연, 청, 서, 양, 웅, 구주이다.
154	百郡秦并	백군진병	진시황이 천하봉군하는 법을 폐하고 일백군을 두었다.
155	嶽宗恒岱	악종항대	오악은 동태산, 서화산, 남형산, 북항산, 중송산이니 항산과 태산이 조종이라.
156	禪主云亭	선주운정	운과 정은 천자를 봉선하고 제사하는 곳이니 운정은 태산에 있다.
157	雁門紫塞	안문자새	안문은 봄기러기 북으로 가는 고로 안문이고 흙이 붉은 고로 자새이라 하였다.
158	鷄田赤城	계전적성	계전은 웅주에 있는 고을이고 적성은 기주에 있는 고을이다.
159	昆池碣石	곤지갈석	곤지는 운남 곤명현에 있고 갈석은 부평현에 있다.
160	鉅野洞庭	거야동정	거야는 태산 동편에 있는 광야 동전은 호남성에 있는 중국 제일의 호수이다.
161	曠遠綿邈	광원면막	산, 벌판, 호수 등이 아득하고 멀리 그리고 널리 줄지어 있음을 말한다.
162	巖岵杳冥	암수묘명	큰 바위와 메뿌리가 묘연하고 아득함을 말한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163	治本於農	치본어농	다스리는 것은 농사를 근본으로 하니 중농 정치를 이른다.
164	務茲稼穡	무자가색	때맞춰 심고 힘써 일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다.
165	俶載南畝	숙재남묘	비로소 남양의 밭에서 농작물을 배양한다.
166	我藝黍稷	아예서직	나는 기장과 피를 심는 일에 열중하겠다.
167	稅熟貢新	세숙공신	곡식이 익으면 부세하여 국용을 준비하고 신곡으로 종묘에 제사를 올린다.
168	勸賞黜陟	권상출척	농민의 의기를 양양키 위하여 열심히 자는 상주고 게을리한 자는 출석하였다.
169	孟軻敦素	맹가돈소	맹자는 그 모친의 교훈을 받아 자사문하에서 배웠다.
170	史魚秉直	사어병직	사어라는 사람은 위나라 태부였으며 그 성격이 매우 강직하였다.
171	庶幾中庸	서기중용	어떠한 일이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일하면 안 된다.
172	勞謙謹勅	노겸근칙	근로하고 겸손하며 삼가고 신칙하면 중용의 도에 이른다.
173	聆音察理	영음찰리	소리를 듣고 그 거동을 살피니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의하여야 한다.
174	鑑貌辨色	감모변색	모양과 거동으로 그 마음속을 분별할 수 있다.
175	貽厥嘉猷	이궐가유	도리를 지키고 착함으로 자손에 좋은 것을 끼쳐야 한다.
176	勉其祗植	면기지식	착한 것으로 자손에 줄 것을 힘써야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이다.
177	省躬譏諷	생궁기계	나무람과 경계함이 있는가 염려하며 몸을 살피라.
178	寵增抗極	총증항극	총애가 더할수록 교만한 태도를 부리지 말고 더욱 조심하여야 한다.
179	殆辱近恥	태욕근치	총애를 받는다고 욕된 일을 하면 머지 않아 위태함과 치욕이 온다.
180	林臯幸卽	임고행즉	부귀할지라도 겸토하여 산간 수풀에서 편히 지내는 것도 다행한 일이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181	兩疏見機	양소견기	한나라의 소광과 소수는 기틀을 보고 상소하고 낙향했다.
182	解組誰逼	해조수핍	관의 끈을 풀어 사직하고 돌아가니 누가 핍박하리오.
183	索居閑處	삭거한처	퇴직하여 한가한 곳에서 세상을 보냈다.
184	沈默寂寥	침묵적요	세상에 나와서 교제하는 데도 언행에 침착해야 한다.
185	求古尋論	구고심론	예를 찾아 의논하고 고인을 찾아 토론한다.
186	散慮逍遙	산려소요	세상일을 잊어버리고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즐긴다.
187	欣奏累遣	흔주누견	기쁨은 아뢰고 더러움은 보내니.
188	感謝歡招	척사환초	심중의 슬픈 것은 없어지고 즐거움만 부른 듯이 오게 된다.
189	渠荷的歷	거하적력	개천의 연꽃도 아름다우니 향기를 잡아볼 만하다.
190	園莽抽條	원망추조	동산의 풀은 땅속 양분으로 가지가 뻗고 크게 자란다.
191	枇杷晚翠	비파만취	비파나무는 늦은 겨울에도 그 빛은 푸르다.
192	梧桐早凋	오동조조	오동잎은 가을이면 다른 나무보다 먼저 마른다.
193	陳根委翳	진근위예	가을이 오면 오동뿐 아니라 고목의 뿌리는 시들어 마른다.
194	落葉飄飄	낙엽표표	가을이 오면 낙엽이 펄펄 날리며 떨어진다.
195	遊鶻獨運	유곤독운	곤새가 자유로이 홀로 날개를 펴고 𪗇하고 있다.
196	凌摩絳霄	능마강소	적색의 𪗇을 업신여기는 듯이 선회하고 있다.
197	耽讀翫市	탐독완시	한나라의 왕충은 독서를 즐겨 서점에 가서 탐독하였다.
198	寓目囊箱	우목낭상	왕충이 한번 읽으면 잊지 아니하여 글을 주머니나 상자에 둬서 갖고 다녔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199	易輶攸畏	이유유외	매사를 소홀히 하고 경솔함은 군자가 진실로 두려워하는 바이다.
200	屬耳垣牆	속이원장	담장에도 귀가 있다는 말과 같이 경솔히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201	具膳飧飯	구선손반	반찬을 갖추고 밥을 먹으니
202	適口充腸	적구충장	훌륭한 음식이 아니라도 입에 맞으면 배를 채운다.
203	飽飫烹宰	포어팽재	배부를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맛을 모른다.
204	饑厭糟糠	기염조강	반대로 배가 고플 때에는 겨와 재강도 맛있게 되는 것이다.
205	親戚故舊	친척고구	친은 동성지친이고 척은 이성지친이요 고구는 오랜 친구를 말한다.
206	老少異糧	노소이량	늙은이와 젊은이의 식사가 다르다.
207	妾御績紡	첩어적방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에서 길쌈을 짜니라.
208	侍巾帷房	시건유방	유방에서 모시고 수건을 받드니 처첩이 하는 일이다.
209	紈扇圓潔	환선원결	흰 비단으로 만든 부채는 둥글고 깨끗하다.
210	銀燭燁煌	은촉위황	은촛대의 촛불은 빛나서 휘황 찬란하다.
211	晝眠夕寐	주면석매	낮에 낮잠 자고 밤에 일찍 자니 한가한 사람의 일이다.
212	藍筍象床	남순상상	푸른 대순과 코끼리 상이니 즉 한가한 사람의 침대이다.
213	絃歌酒讌	현가주연	거문고를 타며 술과 노래로 잔치하니.
214	接杯舉觴	접배거상	작고 큰 술잔을 서로 주고받으며 즐기는 모습이다.
215	矯手頓足	교수돈족	손을 들고 발을 두드리며 춤을 춘다.
216	悅豫且康	열예차강	이상과 같이 마음 편히 즐기고 살면 단란한 가정이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217	嫡後嗣續	적후사속	적자된 자, 즉 장남은 뒤를 계승하여 대를 이룬다.
218	祭祀蒸嘗	제사증상	제사하되 겨울 제사는 증이라 하고 가을 제사는 상이라 한다.
219	稽顙再拜	계상재배	이마를 조아려 선조에게 두 번 절한다.
220	悚懼恐惶	송구공황	송구하고 공황하니 엄중, 공경함이 지극함이라.(3년상 이후의 제사시의 몸가짐이다.)
221	牋牒簡要	전첩간요	글과 편지는 간략함을 요한다.
222	顧答審詳	고답심상	편지의 회답도 자세히 살펴 써야 한다.
223	骸垢想浴	해구상욕	몸에 때가 끼면 목욕하기를 생각하고.
224	執熱願涼	집열원량	더우면 서늘하기를 원한다.
225	驢騾犢特	여라독특	나귀와 노새와 송아지, 즉 가축을 말한다.
226	駭躍超驤	해약초양	뛰고 달리며 노는 가축의 모습을 말한다.
227	誅斬賊盜	주참적도	역적과 도적을 베어 물리침.
228	捕獲叛亡	포획반망	배반하고 도망하는 자를 잡아 죄를 다스린다.
229	布射僚丸	포사료환	한나라 여포는 화살을 잘 쏘고 의료는 탄자를 잘 던졌다.
230	嵇琴阮嘯	혜금완소	위국 혜강은 거문고를 잘 타고 완적은 휘파람을 잘 불었다.
231	恬筆倫紙	염필륜지	진국 봉념은 토끼털로 처음 붓을 만들었고 후한 채윤은 처음 종이를 만들었다.
232	鈞巧任鈞	균교임조	위국 마균은 지남거를 만들고 전국시대 임공자는 낚시를 만들었다.
233	釋紛利俗	석분리속	이상 팔인의 재주를 다하여 어지러움을 풀어 풍속에 이롭게 하였다.
234	竝皆佳妙	병개가묘	모두가 아름다우며 묘한 재주였다.

번호	한자	한글	설명
235	毛施淑姿	모시숙자	모는 오의 모타라는 여자이고 시는 월의 시라는 여자인데 모두 절세 미인이었다.
236	工嘖妍笑	공빈연소	이 두 미인의 웃는 모습이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237	年矢每催	연시매최	세월이 빠른 것을 말한다. 즉 살같이 매양 재촉하니
238	曦暉朗耀	희휘낭요	태양 빛과 달빛은 온 세상을 비추어 만물에 혜택을 주고 있다.
239	璇璣懸幹	선기현알	선기는 천기를 보는 기구이고 그 기구가 높이 걸려 도는 것을 말한다.
240	晦魄環照	회백환조	달이 고리와 같이 돌며 천지를 비치는 것을 말한다.
241	指薪修祜	지신수우	불타는 나무와 같이 정열로 도리를 닦으면 복을 얻는다.
242	永綏吉邵	영수길소	그리고 영구히 편안하고 길함이 높으리라.
243	矩步引領	구보인령	걸음을 바로 걷고 따라서 얼굴도 바르니 위위가 당당하다.
244	俯仰廊廟	부앙낭묘	항상 남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숙여 예의를 지키라.
245	束帶矜莊	속대금장	의복에 주의하여 단정히 함으로써 금지를 갖는다.
246	徘徊瞻眺	배회침조	같은 장소를 배회하며 선후를 보는 모양이다.
247	孤陋寡聞	고루과문	하등의 식견도 재능도 없다.(천자문의 저자가 자기 자신을 겸손해서 말한 것이다.)
248	愚蒙等誚	우몽등초	적고 어리석어 몽매함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249	謂語助者	위어조자	어조라 함은 한문의 조사, 즉 다음 글자이다.
250	焉哉乎也	언재호야	'언재호야' 이 네 글자는 어조사이다.